

한반도 평화와 스포츠: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조 우 찬**

- I. 머리말
- II.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 III.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의미
- IV. 평창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
- V. 맺음말

국문요약

쿠베르탱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에서 착안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근대 올림픽을 창시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현재의 올림픽은 스포츠 본연의 순수한 성격만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며 다면적인 속성이 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올림픽의 운영을 맡은 비영리기구인 IO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다른 한편으로 올림픽 유치를 통한 개최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의 제고와 함께 그 파급력은 상당하며 무엇보다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를 상징한다.

냉전시기를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대에는 스포츠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스포츠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 지닌 상징성과 그 확장성은 유효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극적인 정세 변화를 이끌어낸 촉매제였다. 평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적화된 장소였고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사적 의미를 지남과 아울러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평창 올림픽 이후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방안을 수립해가는 동시에 이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관계,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스포츠와 평화

* 이 논문은 2017년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과 2018년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의 연장선에서 주제를 착안하여 초고를 작성하였고 이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익명의 심사자분들의 유익한 논평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통일부 위촉 통일교육위원

I. 머리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 지닌 속성은 매우 다면적이다.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최초로 개최된 근대 올림픽은 보편적 인류애와 평화를 상징하며 부활했지만 다른 이면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가 특징이었다. 또한, 당시 올림픽을 성사시킨 쿠베르탱을 지지하고 호응한 국가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목적을 올림픽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근대 올림픽의 성공은 인류애와 평화라는 이상적인 가치와 목적보다는 역설적으로 국력 과시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실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올림픽은 미디어 발달의 영향과 함께 거대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되면서 상업성에도 강한 유착을 갖게 되었다. 현재 IOC가 직면한 문제는 경기 진행의 공정성과 올림픽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의 상업성에 대한 비난과 아울러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평화를 상징하는 인류의 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32년 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남북한의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협력의 바탕 아래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은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스포츠,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스포츠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스포츠는 정치에 귀속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연구들이다. 먼저, 북한에서 스포츠가 지닌 역할과 기능들을 고찰하면서 북한의 스포츠는 정치 영역에 포함된다고 분석한 연구¹에서는 스포츠 교류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의 스포츠 이념과 특징이 사상 강화와 집단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비정치적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 수호를

¹ 김미숙, “북한의 스포츠이념과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4), pp. 19~20.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스포츠라고 분석하면서 이념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스포츠의 종속적 특징과 국제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근본적인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스포츠는 외교적 도구의 역할에 그치며 정치적 계산과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²에서는 미중 관계 개선에 핑퐁이 주목을 받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며 과도한 부각이었다고 평가한다. 미국과 쿠바의 야구외교, 미국과 이란의 레슬링 외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에 스포츠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스포츠가 정치의 연장이라고 분석한 연구³에서는 스포츠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국가와 민족주의를 표출하는 분야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강대국들의 권력 게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중 간의 핑퐁외교는 스포츠가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를 추동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구조변화가 스포츠라는 도구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북미관계와 같은 적대관계 개선에 있어서 스포츠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자 접근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 스포츠는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의 하위영역이지만 정치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자율성이 보장된 스포츠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연구이다. 기본적인 시각은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며 스포츠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앞에 언급한 연구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정치적 도구인 스포츠는 자율성보다 구조적인 한계에 놓여 있으며 보조적인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정치와 스포츠가 별개의 분야라고 보기 어렵고 중립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포츠의 수단적 역할에 주목한 데서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한 연구⁴에서는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스포츠 고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남북한의 상

² 설규상, “긴장완화 도구로서 스포츠의 효과성과 한계: 대미 스포츠 외교 사례를 통해 본 북·미관계 변화 전망,” 『사회과학논집』, 제44권 제2호 (2013), pp. 53~55.

³ 송병록, “전쟁,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2017), p. 74.

⁴ 송병록, “스포츠와 정치: 동·서독 스포츠 교류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함의,” 『한독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2004), pp. 147~149.

호이해를 촉진시키고 분단의 벽을 허무는 기제로써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시기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론을 통해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주목⁵하거나 역대 정부의 스포츠 교류협력을 분석한 연구⁶는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에서 스포츠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에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교류가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정서적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⁷하거나 남북한의 체육환경과 교류확대와 관련한 연구들⁸ 역시 기능주의 통합론과 맞닿아 있다. 끝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 스포츠에 대해서 분석하는 한편 유희시설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시설 확충과 국제대회 참여 등 변화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에서 스포츠의 역할이 확대되고 체육정치를 통한 지속적인 스포츠 진흥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⁹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역할에 이어 남북 간에 후속 스포츠 교류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화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써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준비는 물론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남북이 함께 참가하고 공동으로 선수단 훈련을 진행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한 합의와 실무자급 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⁵ 정기웅,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오토피아(Oughtopia)』, 제25권 제3호 (2010), pp. 406~409.

⁶ 김동선,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의 역할: 독일 통일과정의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2001); 김동선,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허정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⁷ 유호근,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함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2007).

⁸ 박영옥, 『남북한 체육환경분석 및 교류확대방안』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2001); 이석주·김홍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으로서의 체육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2); 손환·조현철, “남북스포츠교류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1호 (2006).

⁹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치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6호 (2015), p. 454.

II.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1. 올림픽의 정치성과 동서독의 스포츠 교류협력

올림픽과 정치적 이슈는 처음부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국가 간의 갈등이나 인종차별, 침략 전쟁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인 문제들과도 무관하지 않았다.¹⁰ 근대 올림픽은 초기부터 국가주의의 개입과 표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근대 올림픽이 자리를 잡아가갈 수 있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 독일을 홍보한 파시즘의 경우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올림픽에서 선전함으로써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자유 진영 국가 역시 올림픽을 국가주의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였다.¹¹ 올림픽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 차례나 개최가 무산되었고 냉전 시기에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참가가 결정되는 등 올림픽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표방하는 스포츠정신은 인류를 속박하고 제약하는 여러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평화와 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서독은 통일되기 이전에 올림픽 단일팀을 일찍부터 구성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부문을 포함한 상호 교류협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갔다. 동서독은 1956년 멜버른 하계 올림픽과 코르티나드 동계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한데 이어 1960년 로마 하계 올림픽과 스쿠버 발리 동계 올림픽,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과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국명으로는 ‘Germany’를 사용하였고 국가와 국기는 각각 베토벤 교향곡 9번 일부와 올림픽 마크가 들어간 흑, 주, 황의 삼색기를 사용하였다.¹² 한편, IOC는 1965년에 동독

¹⁰ 민족주의자인 쿠베르탱은 프랑스의 위상 제고에 노력한 인물로 아테네 올림픽에 독일의 참가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최된 런던 올림픽에서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참가에 반대한 이스라엘은 참가가 거부되었다. 영국의 수에즈 운하 점령에 반발하여 네덜란드, 이집트, 이라크, 스페인 등이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불참하였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서 미국 흑인 민권운동과 관련된 블랙파워 시위가 벌어졌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아프리카 20여개 국가들이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를 가진 뉴질랜드의 참가에 대한 반발로 올림픽에 불참하였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불참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로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소련이 불참하였다. 정지웅,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재고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권 제2호 (2008), pp. 260~261.

¹¹ 신현균, “올림픽의 정치학,”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2), p. 196.

¹² 김하복, “남북스포츠 민간교류 활성화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1), p. 640.

을 정식 승인하며 회원국으로 인정하였다. 그 이전에 IOC는 한 정부에 하나의 올림픽위원회라는 원칙에 따라서 동독을 회원국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동독은 서독과 단일팀을 구성하며 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³

1968년 멕시코시티에 출전한 동독은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며 메달 수에서 서독을 4배 이상 앞섰다. 1974년에 동서독은 스포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 관계의 규정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스포츠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교류협력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서독은 친목도모에 중점을 두며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동독은 기록 경신과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 무렵에 동독 선수들의 서독으로의 이탈은 동독 정부를 크게 자극하였다.¹⁴

동서독은 1980년대 중반에 과학과 문화예술 부문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호 교류협력에 있어서 동서독의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 몇몇 도시들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교류, 문화학술 행사 등이 추진되는 등 동서독 도시 간의 교류협력이 진전되었다.¹⁵ 한편, 동독은 서독과의 학술문화 교류가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한 가운데 동서독의 문화교류는 1986년에 문화와 과학기술 분야 협정이 체결되면서 문화, 예술, 교육의 학술교류도 함께 이루어졌다.¹⁶

2. 남북관계와 스포츠 교류협력의 진전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역시 국내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고 유동적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¹⁷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의 출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남북 단일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 남북의 스포츠 교류협력이 순탄하게 전개되지 못한 배경은 체제경쟁을 하며 남북한 모두 정치적 이슈

¹³ 김미숙·송병록. “통일 독일 전 동서독 스포츠 교류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3), p. 82.

¹⁴ 위의 글, pp. 82~83.

¹⁵ 김동선.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스포츠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3), pp. 9~10.

¹⁶ 김홍태·김동선. “교육기관 역할 모색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2006), p. 79.

¹⁷ 김홍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반성적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2), p. 109.

를 스포츠 교류협력과 결부시켰기 때문이다.¹⁸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협상이 수차례 무산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남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시기에 따라 지속과 단절을 반복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된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은 새로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스포츠 교류의 출발은 북한의 홍명희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962년 11월 말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한 실무 회담을 개최하자는 서한을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2년 헬싱키 IOC 총회에서 회원 승인에 실패하였고 1956년 멜버른 IOC 총회에서도 가입이 부결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구성으로의 참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다.¹⁹ 1947년 IOC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IOC 회원국이었으나 나중에 북한이 IOC에 가입하면서 독자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²⁰ 이후 올림픽에 출전할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4년 미국 LA 올림픽 출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역시 결렬되었다. 이어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한 남북 체육회담에서는 올림픽 공동 주최를 주장한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회담을 중단하여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²¹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 역시 회담을 중단한다는 북한의 결렬 통보로 종료되었다.²²

1991년 4월에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6월에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 출전할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졌다.²³ 이를 계기로 하여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진전이 이

¹⁸ 박상현, “남북 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7), p. 266.

¹⁹ 박주한,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실상과 전망,” 『한국체육학회지』, 제31권 제2호 (1992), p. 92.

²⁰ 손환·조현철, “남북스포츠교류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pp. 15~16.

²¹ 김동선,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의 역할: 독일 통일과정의 함의,” p. 7.

²² 김동선,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p. 7.

²³ 최대석,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방안과 활성화 과제,” 『통일경제』 7-8월호 (2002), p. 22.

루어졌고 남북공동응원단이 구성되었다. 1991년에 남북 간에 체육 교류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교환되었다.²⁴ 이 무렵은 동구권 몰락과 소련 붕괴 등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북한이 체제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었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북한은 위협을 감수하고 남북교류에 호응하였다.²⁵

김일성 사망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1999년 8월에 개최되는 가운데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였다.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등 9차례에 걸쳐 국제대회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최식에서 남북한 공동응원이 성사되었고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남북한의 공동 입장이 이루어졌다.²⁶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인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종합 7위 성적을 올리자, 황병서 총정치국장, 당비서인 최룡해와 김양건이 폐막식에 참석하였다. 곧이어 통일부장관과 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여 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한 목적이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남북관계의 즉각적인 변화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래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방문단의 참석은 스포츠를 중시하는 김정은의 의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등장 이후 체육강국을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이다.²⁷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봄에 남북한의 선수단이 국제 스포츠 대회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각각 강릉과 평양을 각각 방문한 것은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대회 디비전2그룹A 대회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동계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북한이 이 대회에 참가한 것은 순위를

²⁴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p. 95.

²⁵ 정기웅,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p. 405.

²⁶ 김재운,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63권 (2016), pp. 26~27.

²⁷ 허정필, 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치: 지속성과 변화,” pp. 457~459.

²⁸ 조우찬, “평화와 스포츠: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가,”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자료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출전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기 전인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의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국제축구연맹(FIFA)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피력한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²⁹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주목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계기와 명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역시 시간이라는 함정에 매몰되게 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남북한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구축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의미

1. 긴장 완화와 변화를 위한 모멘텀

2017년의 한반도 정세는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만큼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 평창 올림픽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엄밀하게 볼 때, 남북관계가 우호적이었던 시기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던 전례들에 비춰본다면 2017년 하반기 상황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예측하거나 단순하게 이벤트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

집』(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2018), p. 357.

²⁹ 조우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촉진을 중심으로,” 『2017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자료집』(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7), p. 75.

픽은 경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내며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국면 전환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치 상태의 정세를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로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문제는 비핵화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진행 예정인 제2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경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북제재 완화 역시 이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팽배한 상호 불신을 허물고 북한 핵 위협과 관련된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낸 평창 동계 올림픽은 그 자체가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올림픽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아닌 평화를 찾아내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처럼 평창 올림픽의 긍정적인 효과는 평창 이후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의 의미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는 남북 스포츠 교류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우선순위에 따라 그리고 단계별 사업추진. 둘째,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 제고, 셋째, 교류 채널의 합리적 설정 및 제도화, 넷째, 교류사업 재원 확보, 다섯째, 외국 체육단체의 협력 유도, 여섯째, 스포츠산업부문 교류 확대, 일곱째, 장기적 체육부문 기능 통합 대비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³⁰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가 필요한 관계로 인하여 위 내용 가운데 실제로 추진된 내용은 많지 않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셋째,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채널의 합리적 설정 및 제도화와 넷째,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통한 원활한 남북 스포츠 교류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하

³⁰ 박영욱, 『남북한 체육환경분석 및 교류확대방안』, p. 145.

기 위한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의 스포츠 교류협력은 선수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과 스포츠 단체의 구성원, 방송언론 종사자, 관중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³¹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스포츠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상호작용이론에 근거하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³² 미트라니(D. Mitrany)의 기능주의와 이를 보완한 하스(E. Hass)의 신기능주의의 이론은 분화된 체제의 통합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베네룩스 혹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는 연방제와 같은 시스템은 여러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끌어 낸다고 보았다.³³ 통합이론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도의 체제 사이에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공통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기능적 협조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양 체제의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된다고 본다. 또한, 파급효과에 주목한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를 보완하여 정치와 행정 영역의 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들의 창조적 활동이 기능적 통합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⁴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로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³⁵

기능주의 통합론에서는 정경분리, 파급효과(spillover)와 통합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용성의 문제와 더불어 한계성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유용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를 보완하는 절충적인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³⁶ 그리고 기능주의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인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한국적 기능주의적 재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⁷

³¹ 이석주·김홍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으로서의 체육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p. 271.

³² 이대희, “스포츠와 정체성의 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3), pp. 397~398.

³³ David Mitrany,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Vol. 24, No. 3 (1948), pp. 350~363.

³⁴ 박영욱, 『남북한 체육환경분석 및 교류확대방안』, p. 13.

³⁵ 이용필 외, 『남북한기능통합론』 (서울: 신유문화사, 1995), p. 34.

³⁶ 김용우·박경귀,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3호 (2000), pp. 18~25.

³⁷ 김근식, “대북 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통합의 양상은 점진적인 구체화의 과정과 제도적 진화를 통해서 진행된다.³⁸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면서 통합 대상 간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통합과 교류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³⁹ 비정치적 영역인 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교류 역시 동일하다. 미국과 중국은 비공식적 외교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1970년대 초반에 ‘핑퐁외교’를 전개하면서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바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대립이 상존해 있던 상황에서 스포츠 교류협력은 관계 개선에 일조하고 상호 이해에 대한 촉매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의미는 향후 남북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기구 및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IV. 평창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의 방향

1. 평화 증진을 위한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증진을 가로막는 법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 합의를 통한 법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⁴⁰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시기에 활성화되었던 전례들에 비춰 볼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활용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이를 선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체육정책을 전개해 왔다.⁴¹ 정권

pp. 48~51.

³⁸ Ernst B. Hass,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0, No. 2 (1976), pp. 199~202.

³⁹ 유호근,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함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p. 83.

⁴⁰ 김범식·김정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5호 (2007), p. 127.

⁴¹ 과거 소련을 위시하여 북한, 동독, 중국 등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의 체육은 집단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엘리트체육을 위한 정책이 운용되는 동시에 일반 주민에 대한 체육 정책이 함께 실시되었다. 소련의 체육정책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스포츠 등급 제도와 더불어 일반 주민들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인 GTO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50-1960년대에 국가 주도 아래 엘리트 체육 관리를 위한 제도인 거국 체제와 함께 일반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서 등급별 체력 표준을 설정한 노위제가 운영되었다. 나

수립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체육의 중요성과 체육의 대중화에 대한 강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에 평양에는 각종 체육 시설들이 확충되고 마식령스키장이 건립되는 등 특히, 체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남북 체육회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제대회와 향후 올림픽 출전을 위한 세부 사항 협의와 이를 토대로 필요한 합의 사항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스포츠 교류협력 전담 기구 창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포츠 교류협력 관련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남북 간에 정례적인 회담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국가에 의해 박탈되고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남북 스포츠 단일팀은 국제대회 출전에 임박해서 구성하지 않고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실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년 1월에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남자 핸드볼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회 참가 선수단은 최초 16명에서 북한 선수 4명을 포함하여 2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⁴² 이와 같이 남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출전 선수 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함께 단일팀 구성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과 제반 협력을 위한 종목별 협의회(TF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단체 등 민간 영역의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스포츠 교류협력 모색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별 교류협력 활성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의 여러 단체들

영일 외, 『북한의 체육과 여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p. 15~17, 24~25.

⁴² “내년 1월 남 핸드볼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 출전 합의,” 『조선일보』, 2018.11.3.

과 기관들이 친선경기와 합동 전지훈련, 스포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진흥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체육 지도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외 대회에 원활하게 준비하고 저변 확대가 필요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한편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진흥을 도모하고 남북 체육학의 발전을 제고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남북의 갈등을 완화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포츠 교류협력은 국제 스포츠 기구와 단체들의 지원과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정치적 영역인 스포츠 교류협력은 국민적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변화시킨 이정표로 기능하였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관련 논의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였다. 실제적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활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편, 2032년 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일국 북한 체육상은 올림픽 경기는 희망이 아니라 자격을 획득해야 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남북한 선수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⁴³ 이처럼 남북 간에 실무 협의를 포함한 지속적인 접촉과 협의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한 스포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남북 간에 합의사항을 타결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실무자급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남북 체육 관련 당국자들이 정례회의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구들이 주축이 된 상설 회의를 혹은 상설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구축에 있어서 스포츠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스포츠 기구들과의 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한 축을 스포츠가 담당하도록 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조치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올림픽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공동 훈련을 전개하고 종목별 출전 선수진에 대해서 남북 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서 남북 단일팀의 전력이 효과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과 아울러 국제 스포츠 행사를 함께 공동으로 유치하여 개최함으로써 공동 올림픽의 사전 준비는 물론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지닌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은 상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통해서 단절된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복원이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⁴³ “북 체육상 2032년 올림픽공동개최유치, 북남이 하나되는 과정,” 『연합뉴스』, 2018.12.2.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는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북미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무렵, 2018년 초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온전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이후에도 냉전적인 국제정치의 대결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미지수였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 평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였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서 평창은 평화 이미지에 어울리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남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평화를 진작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 가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산적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문제의 해결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대북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관계 촉진을 위한 대북정책의 성과가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남북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본연의 스포츠정신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남북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후속적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공동 올림픽 제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견인했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창 올림픽이 세계 평화 정착에도 공헌한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평창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에 주목하였다. 향후에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야 한다. 이와 함께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증진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제출: 10월 17일 ■ 심사: 10월 24일 ■ 채택: 11월 29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나영일 외. 『북한의 체육과 여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박영욱. 『남북한 체육환경분석 및 교류확대방안』.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2001.
- 성문정. 『북한의 체육실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 이용필 외. 『남북한기능통합론』. 서울: 신유문화사, 1995.

2. 논문

- 김근식. “대북 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1호, 2011.
- 김동선.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 교류의 역할: 독일 통일과정의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40권 제2호, 2001.
- _____.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 _____.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스포츠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3.
- 김미숙. “북한의 스포츠이념과 남북 스포츠 교류의 한계에 관한 연구.” 『음직임의 철학: 한국 체육철학회지』. 제12권 제2호, 2004.
- 김미숙·송병록. “통일 독일 전 동서독 스포츠 교류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3.
- 김범식·김정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5호, 2007.
- 김용우·박경귀.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회보』. 제4권 제3호, 2000.
- 김재운. “남북스포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63집, 2016.
- 김화복. “남북스포츠 민간교류 활성화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1.
- 김흥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반성적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1권 제2호, 2002.
- 김흥태·김동선. “교육기관 역할 모색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2006.
- 박상현. “남북 스포츠 협상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2007.
- 박주한.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실상과 전망.” 『한국체육학회지』. 제31권 제2호, 1992.
- 설규상. “긴장완화 도구로서 스포츠의 효과성과 한계: 대미 스포츠 외교 사례를 통해 본 북-미관계 변화 전망.” 『사회과학논집』. 제44권 제2호, 2013.
- 손환·조현철. “남북스포츠교류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1호, 2006.
- 송병록. “스포츠와 정치: 동·서독 스포츠 교류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함의.” 『한독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2004.

- _____. “전쟁, 스포츠 그리고 (국제)정치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0권 제1호, 2017.
- 신현균. “올림픽의 정치학.” 『음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2.
- 유호근.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함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 논총』, 제25권 제1호, 2007.
- 이대희. “스포츠와 정체성의 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2013.
- 이석주·김홍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으로서의 체육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한국체육 과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2.
- 정기웅.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재고찰: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시 민윤리학회보』, 제21권 제2호, 2008.
- _____. “남북한 교류에서 스포츠의 도구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 『오토피아(Oughtopia)』, 제25권 제3호, 2010.
- 조우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전망: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스포 츠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촉진을 중심으로.” 『2017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 술회의 자료집』, 2017.
- _____. “평화와 스포츠: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가.”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회의 자 료집』, 2018.
- 최대석.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방안과 활성화 과제.” 『통일경제』, 7-8월호, 2002.
- 허정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특 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8.
- 허정필·김용현. “김정은시대 체육정치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체육학회지』, 제54권 제6호, 2015.
- Hass, Ernst B.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0, No. 2, 1976.
- Mitrany, David.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 Vol. 24, No. 3, 1948.

3. 기타 자료

- 『연합뉴스』.
『조선일보』.

Abstract

Peace and Sport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the Inter-Korean Sports Exchange*

Woo-Chan Cho

The Olympics do not only have the pure nature of sports, but also have multi-faceted properties. Critics of the IOC, a non-profit organization in charge of running the Olympics, are concerned with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Meanwhile, the ripple effect of the host country's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image through the Olympic Games is significant.

Despite criticism that sports are only political tools, the Olympic spirit of peace and its scalability remain valid. In times of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the Cold War, sports were used as political tools or to show off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In this regard,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had mixed expectations and concerns, was a catalyst for a dramatic change in the situation. As well as the Pyeongchang was an optimized venue for Peace and through leading to a successful hosting was a turning poin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as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future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well as historical significance. From now on,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plan for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and cooperation after Pyeongchang, while pushing for institutionalization.

Key Word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Korean Relations, Inter-Korean Exchang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ports and Peace